

##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여기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온 들녘이 누렇게 물들어 가고 조석으로는 제법 서늘해서 지내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 1월은 그냥 쉬었습니다. 2월부터 바빠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도왔던 템비사에 있는 (Tembisa) 은야티 (Nyathi) 목사네 교회는 1월 한 달 여 낮에만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15명이 정기적으로 전도를 위해 헌신했다고 저에게 알려와 2월 7일 주일 오후 3시에 갔더니 13명이 와 있었습니다. 15명이 헌신하고 13명이 참여한 것은 이곳 정서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아쉬웠던 것은 이전에 전도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1시간여 동안 4명리전도를 시범으로 보이고 간략하게 주의 사항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실천을 위해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2시간여 후에 다시 모여 점검해본 결과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늘 경험했듯이 전도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성공적인 전도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평균 3-5명의 결신자를 얻었고 교회에 오겠다는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은야티 목사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다음 주에 우리로 말하면 부인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총회가 2주에 걸쳐 있게 되어 전도실천을 2주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식이 있어 대부분이 결혼식에 참여함으로 연기하자고 그리고는 또 무슨 이유로 등등 계속 전도 실천이 연기되어 처음 첫날 하고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꾸 내일하자고 연기 하게 되어 절박한 기도가 요청 됩니다.

제가 3년 여 년 전에 이곳 남아공에 온 것은 이 나라 흑인 목회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 목회자의 2%정도라고, 그래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흑인 선교의 첩경이라고 해서 왔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드디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학위를 주는 정규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실제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며 교회 개척을 위해 사역하는 그룹이 (주로 한국 선교사들) 저에게 접근하여 전도학과 성경공부 하는 법을 강의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 2월 6일 토요일 개강수련회에 제가 특강을 2시간여 하게 되었습니다. 음푸말랑가 주(州) (Mpumalanga-우리말로 말하면 도-道와 같음)의 파암슬랑가 (KwaMhlanga-저도 본토인들처럼 발음하기 어려움) 지역에서 그리고 카우텡 주(州) (Gauteng)에 있는 소상구베 ( Soshanguve) 지역에서 약 50여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프레토리아 (Pretoria) 대도시에 한 번 와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여인들은 최선을 다해 화장을 하고 참여 했습니다.

특강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뒤 그 지역에 갔었더니 모두 저를 “그레이트 김”이라 불렀습니다. 제 특강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었기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소상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의 강의가 2월 20일, 3월 5일 격주 토요일 오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거하는 곳에서 강의하는 곳까지 약 120여 km떨어져 있고 시골길이어서 1시간 반이 더 걸립니다. 저는 아직 지리에 밝지 않아 신학교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집에 40km를 운전하여 그 선교사님 차로 현지까지 당분간 이동을 합니다.

개강 수련회에서 했던 특강 때문에 강의실 분위기는 기대로 딱 차 있었고 기대이상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고 집에 돌아 올 때까지 피곤한줄 모르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 전도를 숙제로 내 주었고 때가 되면 함께 현장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첫 시간 (2월 20일) 강의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지 입소문을 듣고 다음 강의(3월 5일)에 7명이 새로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흑인 목회자들을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역사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 중 충성스러운 5명이상의 참 제자를 만나 계속 승법 번식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월 24일 신촌 세브란스 심장 내과에 입원예약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해 3월 15일 일시 귀국 합니다. 진실(큰 딸)이가 군산에 거주하고 있어 일단 공항에서 군산으로 이동하여 며칠 쉬고 세브란스에 갈 계획입니다. 4월 10일 서울대학교 교회 주일예배 설교



개강수련회 소장구베툼은 일부 가고 파암술랑가 팀 기념사진입니다



개강 수련회 특강하는 장면입니다



카암술랑가 강의실 1



카암술랑가 강의실 2

부탁이 있어 설교 후 바로 남아공으로 와야 합니다.

###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일

- \* 제가 한국에 체류 하는 동안 남아공에 남아있는 집사람 건강과 안전을 위해
- \* 심장내과 검진 결과 좋은 소식이 있기를/ 다른 질환도 지켜주시길
- \* 남아공의 신학사역과 템비사 교회 전도 실천을 위해
- \*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Jong-Shik Kim  
P.O. Box 1835  
Halfway House 1685  
South Africa

제 카톡 아이디는 "jhbkim0918"입니다. 지난 편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메일: [jhbkim@daum.net](mailto:jhbkim@daum.net) / [jhbkim@gmail.com](mailto:jhbkim@gmail.com)

남아공 전화: 27(국가번호) 82-6789-146/  
71-545-9123

후원금 보내 주실 곳 : 국민은행  
815-05-0012-987 김종식

내내 평안 하십시오.

2016. 3. 12.

남아공에서 **김종식, 표복자** 올림